

지역 소식통

정읍시,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영하의 날씨에도 생존력이 강해 일명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읍시가 개인위생 관리와 집단 급식소의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기온이 낮은 겨울철, 특히 1월에서 2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감염될 경우 12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문제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소량의 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을 만큼 전파력이 높아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민약 구토나 설사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조리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학교급식 공급 적격업체 12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정읍산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공급 적격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 품목은 장류, 두부류, 떡류, 김치류, 절임류, 유제품, 과일가공품 등 다양하며, 주재료를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나 영업신고증을 보유해 학교급식 납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또한, 정읍산 또는 도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해당 품목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2일까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년 구직 지원 본격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추진... 진로 탐색·1:1 취업 컨설팅 등 제공

정읍시가 구직 의욕을 잃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돕는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된다.

취업 실패나 장기 미취업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다시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최근 취업이나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거나 구직 활동을 중단한 이들에게다.

시는 참여자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각 과정은 진로 탐색, 직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교육, 1:1 취업 준비 컨설팅, 실전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정시대'의 정태규 센터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알선을 넘어 청년 스스로 다시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라며 "참여자 모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밀착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세부 내용이 궁금한 청년은 정읍시 청년지원센터(063-536-03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아사업 추진

총 28명대학생 선발... 사회복지시설 18곳에서 4주간 근무 예정

고창군이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학비마련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일자리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일자리아사업은 군비 1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1년에 2번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특히, 고창군은 2023년도부터 취약계층의 비율을 30%로 정해 더욱 다양한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참여한 대학생들은 실제 행정현장을 경험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근무 부서에서도 업

무 지원 효과와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에 대해 만족을 나타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총 31명이 접수하였고 1차 서류 선발, 2차 해당 사회복지시설 면접으로 총 28명을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했다. 최종 선발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18개소에 1월30일까지 총 4주간 근무할 예정이다.

황민안 고창군 생활력경제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는 것과 동시에 고창을 바로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근무기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기부문화 확산 '성과'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범군민 후원 릴레이 캠페인 통해... 후원 모금액 9억1000만원 달성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2025년에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범군민 후원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한 홍보 릴레이와 현장 캠페인을 통해 1만원의 기적 정기후원계좌 개설을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900여명의 군민이 정기후원에 새롭게 동참했다.

일시 기탁을 포함한 전체 후원 모금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전년 7억 6000만원 대비 약 20% 증가했다.

재단에는 공직자와 농업인 단체, 의용소방대, 소상공인, 지역 기업 등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켜온 이웃들의 따뜻한 나눔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러한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운다는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보여줬다.

특히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이 다시 후원자로 참여하는 선순환 사례는 재단 장학사업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2017년 대학 1학년 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장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대학교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매년 약 2200명의 학생에게 20여억 이상의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 이상 다자녀 가

학생에게는 100만원의 다자녀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대상으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장학제도도 운영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초·중·고등학생과 단체를 위한 특기장학금, 생활과학교실, 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 지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설립 이후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반값등록금 완성과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역 인재 육성의 중심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매일홀딩스 엠즈씨드, 고창 우수 농산물로 '상생협력'

폴바셋, 전국 146개 매장에 고창 땅콩·고구마·복분자 디저트 런칭 계획

고창군이 7일 군청에서 엠즈씨드(주)(대표 권익범)와 고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고창군과 엠즈씨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땅콩, 복분자 등을 활용해 디저트 메뉴를 개발한다.

이후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폴 바셋(Paul

Bassett)'의 전국 146개 매장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맛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엠즈씨드(주)는 매일홀딩스(매일유업 지주사)의 자회사로, 카페 폴바셋과 돼지고기 사브사브 전문점 '사브식당 상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과 엠즈씨드(주)는 △고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 및 원물 구매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공동 마케팅 △기타 지역 상생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폴바셋에서는 고창 땅콩 카페라떼, 고창 고구마 라떼, 고창 복분자 에이드, 고창 고구마 치즈 케이크 등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장학숙, 2026년도 입학생 98명 모집

내달 3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인 '정읍장학숙'의 2026년도 입학생 선발 요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재단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정읍 출신 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98명의 입학생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정읍장학숙은 연면적 3997㎡ 규모에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조성돼 있으며, 기숙사 36실을 비롯해 독서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입사비 연 7만원과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의 사용료로 책정돼 있어,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적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남자 43명, 여자 55명 등 총 98명이다.

모집 유형별로는 신규 입학생 50명과 재입학생 48명으로 나뉘며,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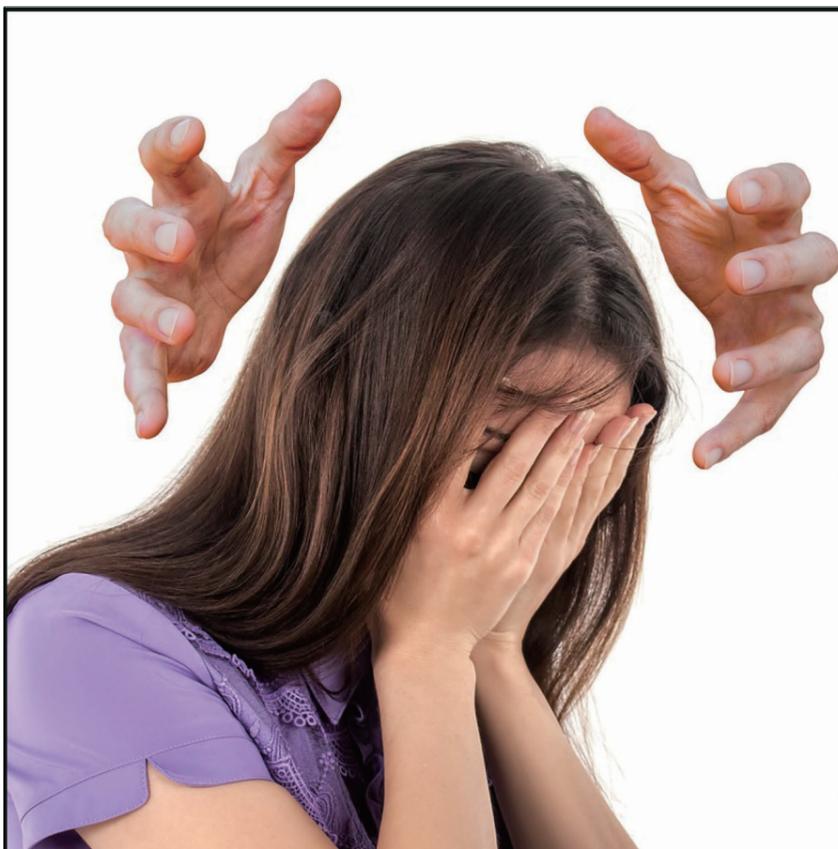
학생도 포함해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입사 지원자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선발 순위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 1순위에 해당한다. 2순위는 통학이 가능한 비수도권 대학 교 재학생이나 재수생,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입사생 선발은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신규 입학생의 경우 학업성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을 합산하며, 국가유공자 자녀나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족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입사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정읍시민장학재단(정읍시 충정로 93, 2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